

인간의 묘(妙): 욕망 안에서의 사유

-파트리크 쥐스킨트 <향수: 어느 살인자의 이야기>-

문화콘텐츠학과
2016***** 김다희

I. 서론

“모든 것은 조물주의 손에서 나올 때는 완전하나 인간의 손에 들어오면 변질되고 만다.¹⁾” 인간의 욕망은 매우 파괴적인 성질을 띠어 그에 닿는 대상의 본질을 변질시키고 가치를 퇴색시킨다. 인간은 마당에 심는 나무 한 그루조차도 ‘아름다움’이라는 이름하에 본래의 형상을 허락하지 않는다. 스스로의 판단아래 이상적인 모양으로 끊임없이 가치를 처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얼핏 보면 감각적이고 생산적으로 비친다. 그러나 실상은 개별의 고유성을 인정하지 않는 이기적이고 폭력적인 행태의 발로일 뿐이다.

루소는 그의 책 <에밀>에서 “욕구를 그리 많이 갖지 않고 자기를 다른 사람들과 자주 비교하지 않을 때 인간은 본질적으로 선량하게 된다. 반면 많은 욕구를 갖고 남의 평판에 지나치게 집착할 때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악해진다.²⁾”고 말한다. 앞선 어구에서 루소가 자연의 절대적 선성을 강조했다면 후자는 자연에서 기원한 인간의 선성이 사회 속에서 타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의 자아는 사회 속 구성원들과 유기적 관계를 맺으며 성숙한다. 그러나 동시에 ‘내가 갖추지 못한 것’을 가진 타자를 보며 질투하며 외면하기도, 때론 내가 욕망하는 무언가를 이미 갖춘 객체 자체를 탐하기도 한다. 이렇듯 사람은 필연적으로 자신에게 없는 것을 갈구하며 욕망한다.

흔히 사람들은 ‘욕망’이란 단어를 떠올리면 욕망의 자기 파괴적이고 폭력적인 이미지를 먼저 떠올린다. 그러나 욕망이 그러한 부정적 의미만 내포하고 있다면 가장 고귀하고 숭고한 가치인 ‘사랑’과 함께 설명되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의 심리학자 로버트 스텐버그(Robert Sternberg)는 1985년 ‘사랑의 삼각형 이론(Triangular theory of love)’을 발표하며 ‘개입(Commitment)’, ‘친밀감(Intimacy)’ 그리고 ‘열정(Passion)’이 ‘완전한 사랑’을 완성하기 위한 3요소임을 밝혔다. 사랑이란 퍼즐을 맞춰 가는 과정에서 삼각형의 꼭짓점에 해당하는 앞선 세 감정들이 흩어졌던 퍼즐조각이 맞물리듯 조화와 균형을 이뤄가는 것이다. 스텐버그는 이 중 ‘열정’을 대상의 신체적 매력, 그리고 그로인한 성적 흥분, 욕망을 유발하는 충동이며 생리적 차원의 사랑의 ‘뜨거운(hot) 측면’이라고 정의 내렸다. 이러한 단어를 루소는 열정보다는 ‘정념’에 가까운 의미로 사용했으며 대개의 경우 물질적 욕구를 제외한 모든 정신적 욕망을 의미한다.³⁾ 욕망이 사랑을 향할 때 정념 또는 열정은 필연적이며 그렇기 때문에 욕망과 사랑 또한 ‘좋다’ 혹은 ‘나쁘다’는 이분법적인 논리로 나눌 수 없다. 욕망과 사랑은 등을 맞대고 쉬며, 나란히 같은 길을 걷어가는 동반자이다.

1) 장 자크 루소, 『에밀 또는 교육론 1』, 이용철·문경자 역, 한길사, 2008, p.57.

2) 장 자크 루소, 『에밀 또는 교육론 2』, 이용철·문경자 역, 한길사, 2008, p.23.

3) 장 자크 루소, 『에밀 또는 교육론 1』, p.79.

이렇듯 사랑에 대해 논할 때 욕망은 빠질 수 없는 요건이나, 동시에 가장 기피되는 논의거리이기도 하다. 현대인들은 누구나 사랑을 바라고, 열망하며 또한 동경하지만 사랑의 부산물인 욕망에 대한 언급은 회피한다. 마치 욕망을 입에 올리는 순간 자신들 사랑의 순수함이 훼손되더라도 하는듯한 내면의 죄의식은 외부로 발산되며 사랑의 범주 안의 욕망이 설 곳을 점점 좁혀간다. 그리고 결국 시간이 흘러 욕망은 사랑이란 베일 뒤에 숨겨져 은밀하게 행해지는 관념으로 자리매김하였다. <향수>의 저자 쥐스킨트는 혁신적이게도 주인공 그르누이를 통해 욕망의 파괴적이고 폭력적인 성향을 전면에 드러내며 도리어 사랑을 역설한다. 그는 ‘사랑에 기인한 욕망’의 본질적인 해답을 내리며 이야기를 전개해간다. 이어서 ‘욕망’의 시작과 이해, 그리고 그 결과를 보며 쥐스킨트의 욕망에 대한 풀이를 살펴볼 것이다.

II. 본론

1. 욕망의 시작 - 결핍의 인지, 이방인의 삶

“그녀는 단지 진통이 빨리 끝나기를, 가능한 한 빨리 이 구역질나는 출산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바랄 뿐이었다.”⁴⁾ 날카로운 불행아래 시작된 생이었다. 삶이 시작되기도 전, 미리부터 겪는 존재에 대한 배척은 갓 태어난 아기를 괴물로 거듭나게 하기 충분했다. 배제된 모정에 응답하듯 그르누이의 첫 울음 또한 “동정이나 사랑을 갈구하는 본능적 울부짖음⁵⁾”이 아닌 생존을 목적으로 한 “충분한 생각과 심사숙고 끝에 나온 비명⁶⁾”이었다. 그리고 그러한 비명으로 그르누이는 소외된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 통보한다.

루소는 “모자간의 의무는 상호적이다. 한쪽이 그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다른 한쪽도 그것을 게을리 하게 된다.”⁷⁾고 주장했다. 혈연의 습관과 보살핌으로 애착이 강화되지 않을 시 아이의 애정은 “생기기도 전에 죽어버리며⁸⁾” 그리하여 아기는 “첫발을 내딛자마자 자연에서 벗어나게⁹⁾”되는 것이다. ‘모성애’, ‘보호’, ‘책임감’등으로 정의되는 일반적인 순리에서 생의 직후 이탈된 그르누이는 결여된 모정을 보상받길 원하듯 보모들의 젖을 게걸스럽게 탐한다. 첫 숨을 내쉬기부터 이어진 인간으로부터의 배타에 대응하여 자신의 결핍을 본능적으로 메워가는 것이다.

“이 아인 악마에 씌었어요.”¹⁰⁾ 아기 그르누이를 맡아 기르던 유모 잔 뷔시가 한 말이다. 그녀는 모든 아기에게 있는 ‘체취’가 그르누이에게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르누이를 악마라 칭하며 거부한다. 실제로 ‘냄새’에 해당하는 범주에 대해서만은 그르누이는 대단히 악마적이며 동시에 경탄스러운 천재이다. 그르누이에게 냄새는 언어이자 기호이다. 그는 아주 미약한 냄새도 맡을 수 있는 신적인 후각을 지녔으며 그로부터 세상의 모든 사물을 인식한다. 그르누이가 배워 습득하는 단어는 그 대상의 고유한 냄새로부터 기원한다. 그렇기에 ‘냄새’가 있는 것들은 그르누이의 개입을 피해갈 수 없다. 그러나 사랑, 감사, 인내와 같이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단어, 곧 냄새가 존재하지 않는 추상적 개념어들은 그르누이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다.

4) 파트리크 쥐스킨트, 『향수』, 강명순 역, 열린책들, 2017, p.11.

5) 파트리크 쥐스킨트, 위의 책, p.35.

6) 파트리크 쥐스킨트, 위의 책, p.35.

7) 장 자크 루소, 『에밀 또는 교육론 1』, p.76.

8) 장 자크 루소, 위의 책, p.76.

9) 장 자크 루소, 위의 책, p.76.

10) 파트리크 쥐스킨트, 위의 책, p.18.

일축하자면, 그르누이의 세상은 ‘냄새’라는 편향된 개념들로 구성되어 지각된다. 주목할 만한 점은 세상의 근간을 이루는 그 ‘냄새’가 그르누이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다른 모든 것들의 냄새를 기민하게 알아차리는 그르누이는 유독 ‘자신의’ 냄새가 부재하다는 사실만은 늦게 알아차린다. 타자에게 집중되었던 시각을 돌려 온전히 스스로를 마주하고서야 그르누이는 자기 자신의 ‘결핍’을 깨닫기 시작한다.

<향수> 본문에서의 “체취”의 의미는 개인의 ‘고유성’ 내지는 ‘정체성’이다. 그리고 체취를 지니지 못한 그르누이는 태어난 이후로 수많은 거부를 직면한다. 이러한 이유의 기저에는 ‘체취’와 ‘영혼’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개인의 고유한 ‘냄새’라는 것은 동시에 그 ‘존재의 핵’이다. 그르누이와 같이 민감한 후각을 지니지 못한 일반적 개개인들도 은연중에 ‘냄새’로서 타인을 의식하고 그에 대한 정보를 습득한다. 그르누이에 대한 배척의 근거도 이에 존재한다. 체취가 결여된 그르누이는 ‘동류’로서 인식되지 않는다. 그는 괴물이며 사회의 이방인이다. 그렇기에 거리낌 없는 ‘착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망정 같은 인간으로서의 전인격적인 만남의 고려대상은 아니다. 취합되는 범주를 달리하니 그의 ‘신적인’ 재능조차 괴이한 기벽으로 비칠 뿐이다. 그러니 그에 감탄할망정 매혹되진 않는다. 이는 발디니가 그르누이에게 느낀 “경건한 혐오감¹¹⁾”이라는 어구에서 잘 드러난다. 또한 결국 “진드기”로서 귀결되는 그르누이에 대한 묘사는 사회의 부외자로서 존재하는 그의 ‘인간 같지 않은’ 재능-후각-을 설파함과 동시에 인간으로서 ‘포용’되지 않는 그르누이에 대한 표상을 직간접적으로 나타내기도 한다. 이러한 사회의 냉담 속에 그르누이는 마치 진드기처럼 고요히 숨죽여 자신의 결핍을 채워줄 사냥감을 물색하기 시작한다.

2. 욕망의 이해 - 비운의 나르시시스트(narcissist)

<향수>에는 ‘사랑’이란 단어가 자주 등장한다. 그러나 그 의미가 진정 사랑으로 통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오히려 ‘폭력’이나 ‘착취’가 의미상 대구될 정도로 그르누이가 명명하는 ‘사랑’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적 편차가 발생하는 원인은 그르누이가 내포한 ‘극단적 자기애’로부터 비롯된다. “자연은 인간에게 모든 생물체에게 공통된 자기 보존의 욕구인 ‘자기애(amour de soi)’와 그 욕구를 충족시킬 충분한 힘을 부여했으며, 인간은 그 욕구가 충족될 때 ‘존재의 느낌(sentiment de l'existence)’에서 나오는 행복을 느끼도록 만들어졌다.¹²⁾” 그르누이는 평균치를 상회하는 자기 보존 욕구를 지녔으며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힘-후각-도 갖추었다. 그러나 그는 삶의 종착지에 도달해서야 비로소 ‘존재의 느낌’을 향유할 수 있었다. 이는 그 자신에 대한 자기애가 지나쳐 오히려 스스로의 욕구를 바로 보는 것을 간과한 결과이다. 그의 자기애는 자신의 신적 후각에 근거하여 ‘오만’으로 성숙했다. 사람들이 사랑에 빠지는 이유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외모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 어느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향기 때문이라는¹³⁾” 향기의 비밀이 존재하고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 그르누이 자신밖에¹⁴⁾” 없다는 상대적 우위는 곧 향수를 이용한 ‘지배욕구’로서 발산된다.

타인의 감정을 지배하는 ‘인공향수’, “그 냄새를 맡은 사람은 누구나 다 그 냄새의 주인을

11) 파트리크 쥐스킨트, 앞의 책, p.163.

12) 이용철, 『『에밀 또는 교육론』: 상상력을 통한 자연의 승화』, 『에밀 또는 교육론 1』, p.21.

13) 파트리크 쥐스킨트, 앞의 책, p.254.

14) 파트리크 쥐스킨트, 위의 책, p.254.

마음속 깊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천사의 냄새¹⁵⁾”를 만들어 수많은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것이 그르누이가 절대향수를 제작하는 목적이다. 모순적이게도 그르누이의 향수는 사랑에 대해 논하면서도 결국 향수의 본질적인 쓰임새는 ‘타자에 대한 억압’으로 종결된다. 마치 사람들이 개개인의 고유한 냄새를 인공향수를 이용하여 감추어 덮듯 그르누이의 향수 또한 ‘폭력’을 ‘사랑’으로 포장한다.

“사실 외로운 진드기이자 잔혹한 괴물 그르누이는 단 한 번도 사랑을 느껴 보거나 사랑을 받아 본 적이 없었다. 그런 그가 3월의 어느 날 그라스의 성벽에 기대어 사랑을 느끼고 있었다. 그 사랑으로 그는 행복했다.¹⁶⁾” 자신이 만들 향수의 재료로 안배한 소녀의 향을 음미하며 그르누이는 사랑으로 인한 행복을 느낀다. 그의 사랑의 근간은 ‘욕망’이다. 그르누이가 향기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주인의 ‘상실’이 전제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일방적 찬탈관계에 대해 ‘약탈’이라 명할 수는 있어도 사랑의 이름으로 부르진 않는다. “사랑은 주는 것과 받는 것이 동시에 발생하는 신비한 역설 그 자체이다.¹⁷⁾” 내가 주어도 마음의 풍요가 차오르는 충족의 순간이며 사랑하는 대상의 상실에 반응하는 동화의 순간이기도 하다.

단 한 번도 인격적인 사랑을 받아본 적 없는 그르누이는 사랑에 대한 이해가 불가하다. 사랑을 경험해본 적도 없으며 ‘사랑’이 냄새가 있는 대상도 아니니 그가 형성한 사랑의 개념은 부실하다. ‘사랑’에 대한 공감이 부재하니 당연한 수순으로 자신의 ‘사랑에서 기인한 욕망’을 깨닫는 것도 어렵다. 그렇기에 그는 자신의 욕망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가한다. 그르누이의 자족적 오만에 기대어 착취의 산물인 ‘절대향수’는 완성된다. 그러나 그 향수는 결국 스스로의 공허를 반추하는 결과만 야기할 뿐이다. “모든 악의는 나약함에서 비롯된다.¹⁸⁾” 그르누이는 그 누구보다 악마적이기에 동시에 가장 나약한 인간일 수밖에 없다.

3. 욕망의 결과 - 우상을 섬긴 신자, 구원의 문을 두드리며

“냄새는 호흡과 한 형제¹⁹⁾”이다. 인간은 ‘살기 위해서는’ 호흡해야 하는 존재이다. 그리고 냄새로서, 그리고 호흡으로서 인간을 ‘지배’하고자 하는 그르누이의 욕망은 생에 대한 치명적인 위협임과 동시에 삶의 주도권을 앗아가겠다는 포고이다. 냄새의 힘을 맹신하고 자신의 천재성을 과신하며 그르누이는 자기 ‘욕망’의 충실한 신도로서 살아간다. ‘향기’를 이용한 포고는 내밀하면서도 위하적으로 사람들의 내면을 흔들며 가장 순결한 소녀들에게서 약탈한 향기의 공양은 그르누이의 ‘신’을 실체화시킨다. 그리고 마침내 그르누이의 욕망, 그를 살게 한 ‘신’은 ‘향수’라는 태를 취한채로 현신한다.

예상과 달리 그르누이가 향수를 뿌린 뒤 느낀 감정은 ‘증오’이자 ‘인간에 대한 역겨움’이었다. 모두가 무릎 꿇고 마치 ‘신’을 보듯 그르누이를 숭상하나 오히려 그르누이는 “그에게 있어 유일하게 진실한 감정인 이런 증오심에 대해 그들 역시 증오로 답해 오기를²⁰⁾” 바란다. 그르누이의 향수는 완벽하다, 곧 ‘완벽하게 인공적’이다. 그렇기에 그가 절대적이라고 여긴 향수는 결국 또 하나의 가면에 불과하다. 그르누이가 진실로 바라왔던 것, 그의 하나뿐인 소망은 “단 한 번만이라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어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²¹⁾”는 것이며 그런

15) 파트리크 쥐스킨트, 앞의 책, pp.230~231.

16) 파트리크 쥐스킨트, 위의 책, p.281.

17) 강의노트 <사랑에 관한 성찰>.

18) 장 자크 루소, 『에밀 또는 교육론 1』, p.114.

19) 파트리크 쥐스킨트, 앞의 책, p.231.

20) 파트리크 쥐스킨트, 위의 책, p.355.

“그의 진짜 모습을 그대로 인정²²⁾”받는 것이다. 허나 광장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 중 그 누구도 그르누이의 가면 속 맨얼굴을 궁금해 한 사람은 없었다. 원래의 그르누이가 ‘체취가 없기에’ 사회에 소속되지 못했다면 향수를 두른 그르누이는 ‘지나치게 완벽한’ 인공 가면을 썼기에 그 자신의 존재감을 상실한다. 그리고 그르누이는 ‘변함없이 섞이지 못하는 스스로의 모습’과 아무것도 아닌 ‘껍데기’에 불과한 자신의 가면에 열광하고 숭배하는 군중의 모습을 보고 극심한 허무와 염증을 느낀다. 광장에 모인 사람들은 아무도 자신의 존재에 대해 묻는 그르누이의 처절한 외침에 응답하지 않는다. 그들은 오직 각자의 내밀한 욕망, 향수가 어루만져주는 예민한 자극에만 온 신경을 곤두세운다. 결국 그르누이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로서 그 자신에게 되돌아올 뿐이다. 누구도 답해주지 않는 자기 본질의 상망, ‘신’으로서 섬겼던 ‘지배의 욕망’이 채워지지 않는 ‘결핍’으로서의 ‘우상’임을 깨달은 그르누이는 존재에 관한 근원적인 답을 찾고자 모든 것이 시작된 자신의 고향, 파리로 향한다.

“I was as dazed as one who still lives and knows not that he lives.²³⁾” 오비디우스의 <비가>에 나오는 시문이다. ‘살아있으나 그 존재를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가 그르누이를 떠올리게 한다. 이제까지 자신을 살게 했던 모든 욕망을 모두 잃은 그는 영혼의 여백을 안고 다만 자신의 근원으로 향할 뿐이다. 그르누이는 살고자 파리로 향하는 것이 아니다. 그가 “바라는 것은 파리에 가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²⁴⁾”이다. 죽을 자리로 자신과 같은 사회의 주변인들의 곁을 선택한 그르누이는 그들의 곁에 다가가 향수를 온 몸에 흘뿌린다. 그러자 부랑아들은 그르누이에게 달려들어 그의 육체를 조각내 먹어치워 버린다. 그르누이의 원초적 내면의 욕망은 ‘타인과의 교감’이다. 가면을 쓰지 않는 이상 누구도 관심가지지 않는 외인, 그르누이는 죽음 앞에서야 비로소 온전한 사랑의 이름아래 타자와의 접점을 가질 수 있었다.

“사람들은 손톱과 발톱을 세우고 그의 육체에 달려들었다.²⁵⁾”, “천사의 몸뚱이는 삼시간에 서른 조각으로 잘렸다. 그걸 한 조각씩 움켜쥔 사람들이 황홀한 쾌감을 느끼며 뒤로 물러나 먹기 시작했다.²⁶⁾” 사람들과 그르누이는 접촉한다. 세상을 ‘후각’으로 느끼나 자기 자신의 냄새만 맡을 수가 없어 ‘스스로에게 조차’ 그 존재를 인정받지 못했던 그르누이는 수많은 타인과 ‘접촉’함으로써 그 존재를 인정받는다. 이는 그르누이가 타자에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진정한 ‘사랑’의 순간이며 부랑아들과 그르누이 사이에 사랑의 ‘주고받음’이 생겨나는 ‘응답’의 때이기도 하다. 따뜻한 온정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사회가 낳은 고아들은 단지 ‘상호의 존재를 인정’해줌으로서 서로간의 ‘영혼의 치유’를 이뤘다. 결국 부랑아에게 육체가 ‘닿는(Touching)’ 순간 그르누이의 영혼 또한 구원의 문에 ‘닿은(Knocking)’ 것이다.

“신의 냄새는 이 얼마나 초라한가! 신께서 자신을 향해 피어오르도록 한 이 냄새는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형편없었다. (중략) 신이 악취를 풍기다니. 정말 보잘것없고 초라한 악취였다. 신이 사람들에게 속았거나 아니면 신 자신이 그르누이처럼 사기꾼임에 틀림없었다. - 물론 훨씬 더 못된 사기꾼 말이다.²⁷⁾” 신을 ‘악취 나는 사기꾼’으로 단정했던 그르누이는 죽음 전에 자신의 모든 기량을 쏟은 역작(masterpiece)을 몸에 뿌린 후 부랑아들에게 몸을 던진다.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것으로, 가장 향기 나는 존재로서 사회의 가장 낮은 이들에게 몸을

21) 파트리크 쥐스킨트, 앞의 책, p.355.

22) 파트리크 쥐스킨트, 위의 책, p.355.

23) Ovid, *Tristia, Ex Ponto*,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1988, p.21.

24) 파트리크 쥐스킨트, 앞의 책, p.370.

25) 파트리크 쥐스킨트, 위의 책, p.374.

26) 파트리크 쥐스킨트, 위의 책, p.374.

27) 파트리크 쥐스킨트, 위의 책, p.232.

바친 그르누이는 스스로의 몸을 신께 제사 드리는 것만 같다. 그리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가 바치는 자신의 모든 것’에 신은 사랑으로 응답한다. 그리하여 그르누이는 죽음의 순간 ‘사랑’아래 그의 영혼의 공백의 마지막 한 조각(piece)을 채워 넣을 수 있었다. 역설적이거나 그는 죽어서야 비로소 살 수 있었으며 죽었으나 죽지 않은 존재로서 그 인생의 종말을 고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요한복음 11:25-26)

III. 결론 - 사유하는 존재로서의 속명

‘결핍’은 사랑과 욕망을 매개한다. 결핍 안에서 정해지는 사유의 방향에 따라 인간의 영혼은 진정한 사랑아래 고향을 이루어 존재론적 상승을 바라보기도, 또는 욕망의 논리 속 세속과 염세에 물들어 타락하기도 한다. 인간은 깊이 있는 사유를 할 수 있는 지상 유일한 존재이다. 그렇기에 삶의 회의에 빠지기도, 때로는 인간으로서 시험을 겪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사유 속에서 행복을 향유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사회 속에서의 타자와의 비교, 열등감, 자기 안에서의 기대…. 이런 것들로부터 인간의 결핍은 발생한다. 결국 결핍 또한 사유의 과정에서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으며 결핍으로부터 욕망이 파생되니 인간에게 있어서 욕망에 대한 사색은 필연적이다. 그러나 사람이라면 누구나 욕망을 느끼고 자기 안에 내재된 결핍의 존재를 알고 있으나 그 누구도 ‘결핍’과 ‘욕망’에 대해 심도 있는 사유를 시도하지 않는다. 오직 인간 존재이래 최대의 수확물인 ‘사랑’을 좇을 뿐이다. 그렇다면 ‘사랑’은 그 자체로 완전한 것인가? ‘결핍’과 ‘욕망’이 부재한 사랑. 과연 ‘욕망’과 ‘사랑’이라는 불가분의 관계에서 사랑 그 자체로서의 온전함에 대해 논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지 회의적이다. 오히려 ‘결핍’과 ‘욕망’이 없는 사랑은 그 두 요소가 없으니 ‘결여된 사랑’이 아닌가? 어쩌면 ‘결핍’과 그로인한 ‘욕망’을 부정하려는 시도부터 인간의 온전함에 대한 환상(fantasy)은 시작되는지도 모른다.

<향수> 본문의 그르누이는 고독의 극점에서 욕망의 본질을 통찰한다. 자신의 고향으로 회귀하던 그르누이는 광장에 모였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진짜로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 그들은 영원히 모를 것²⁸⁾”이라며 자조적으로 되된다. 세상 사람들의 눈이 모두 다른 곳을 향하듯, 욕망 또한 개개가 바라보는 방향을 달리한다. “욕망은 고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결합과 합일을 원하는 욕망으로, 무력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세계를 자신이 원하는 대로 변형시키려는 창조와 초월의 욕망으로, 그리고 허무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지향의 틀과 헌신의 대상을 구하는 욕망으로 나타난다.²⁹⁾” 이제까지 그르누이는 ‘욕망’을 붙잡고 생을 이어왔다. 가장 열망하면서도 비밀스러웠던 타자와의 ‘교감’에 대한 욕망부터 ‘지배욕’, 가장 좋은 향수를 만들고자 하는 ‘창조의 욕망’…. 이러한 것들은 모두 그르누이의 ‘결핍’이고 또한 ‘욕망’이다. 그러나 과거 그르누이는 자신의 욕망에 대해 오독했으며 그로인해 비극적 결말을 맞이한다.

‘욕망’은 ‘사랑’의 시각으로 사유함으로써 환상을 넘어 실재가 된다. “사랑은 주체의 결핍과 타자의 열림이 겹치는 곳에서 발생한다.³⁰⁾” 한쪽만이 열려 나머지를 품어주거나 일방적인 의

28) 파트리크 쥐스킨트, 앞의 책, p.371.

29) 정준영·한자경·이덕진·박찬국·권석만·우희중, 『욕망 삶의 동력인가 괴로움의 뿌리인가』, 운주사, 2008, pp.219~220.

30) 강의노트 <사랑에 관한 성찰>.

지를 할 시 그 관계는 '예속'으로 묶일 뿐이지 결코 사랑이 될 수 없다. 사랑은 비교적 동등한 두 대상이 서로를 만나 각자의 결핍을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욕망'으로 인한 소유, 집착, 자기분위... 그러한 부산물 또한 '욕망' 그 자체이며 또한 '사랑'의 갈래이다. 그는 추한 자기만족의 발로가 아닌 사랑의 주체로서 자연스럽게 깨달아가는 하나의 감정일 뿐이다. '욕망'의 존재를 부정하기보다 인간은 그 감정 안에서 올바르게 사유하는 것을 선행해야 한다. 삶의 불꽃이 타오를 때 그 온기가 사랑이라면 욕망은 장작이다. 빨감이 과하면 불의 뜨거움은 화마(火魔)로서 상처를 입힌다. 그러나 장작이 없었다면 불씨가 생길 수조차 없었으며 인간은 사랑으로 인한 따뜻함을 모르는 채로 살아왔을 것이다. 욕망은 사랑의 기점이다. 욕망에 대한 사유의 방향성이 제대로 잡힌다면 욕망은 인간에 대한 위협을 가하지 않고 '사랑'의 충족을 배가시키는 촉발제가 되어줄 것이다.

참고문헌

1. 기초자료

파트리크 쥐스킨트, 『향수』, 강명순 역, 열린책들, 2017.

2. 단행본

장 자크 루소, 『에밀 또는 교육론 1』, 이용철·문경자 역, 한길사, 2008.

장 자크 루소, 『에밀 또는 교육론 2』, 이용철·문경자 역, 한길사, 2008.

정준영·한자경·이덕진·박찬국·권석만·우희종, 『욕망 삶의 동력인가 괴로움의 뿌리인가』, 운주사, 2008.

Ovid, *Tristia, Ex Ponto*,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1988.

3. 논문

이용철, 「『에밀 또는 교육론』: 상상력을 통한 자연의 승화」, 『에밀 또는 교육론 1』.

4. 기타

강의노트 <사랑에 관한 성찰>.